

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5월 10일 주일예배 설교입니다.

< 감사하는 오월 >

시편 136:23-25 / 새찬송가 559(통일 305)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가족과 이웃이 서로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날이 모여있는 이 아름다운 5월에 우리는 먼저 ‘지금까지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장 감사해야 할까요?

1.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기억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셔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시136:23). 심지어 내가 범죄하여 비천하게 있을 때도 나를 기억하셨습니다(시13:1),(사29:14,15).

버리신 것과 잊으심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다. 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실지언정 잊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구원과 회복과 축복의 출발입니다.

모든 것은 기억에서 사라질 때 완전히 멸망 받습니다(요10:10). 멸망시킨다는 것은 기억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의 창씨개명과 우리말 없애기가 바로 그랬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 탄식한 것도 결국 기억해 주는 자가 없는 까닭입니다(전1:9-11).

기억이란 잃어버린 과거를 다시 찾아 이 땅에서의 내 삶이 허무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기억을 출발점으로 해서 우리를 악한 영들과 죄와 정죄와 질병과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영혼육과 생활에 풍성히 내려주십니다(시136:24,25).

또 하나님은 내가 회개한 죄들은 다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하나도 남김없이 기억하셔서 복을 주십니다(히8:12).

2.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참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히103:1-5). 참된 감사의 출발이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은 타락 전에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기억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한 감정을 기억하고 있기에 그 행복한 감정을 그리워하고 그 빈자리를 세상의 좋은 것들로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기 전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빈자리 즉 행복한 감정을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술이나 문학등으로 감동해도 그것은 에덴 낙원에서의 행복했던 감정을 기억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결국 세상의 행복이 영원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것은 우리가 그림자에 머물지 말고 그 그림자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섭리입니다. 진정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방해받지 않도록 문제나 질병에 시달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 적용 & 실천 >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에 대해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